



누구든지 딸 수 있습니다. 열 수 있습니다. 이 자격으로 모국의 맛을 자랑하는 가게를 당신도 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 ★★- 만약 당신이 요리하는 것을 좋아한다면 장래에 모국의 가정 -★★
- ★★- 요리의 맛을 전하는 가게를 여는 것도 꿈만은 아닙니다 -★★

지금, 일본에서는 세계 각 국의 요리를 제공하는 레스토랑이 있어 일본인에 있어서 그런 가게에서 식사를 하는 것은 몹시 인기가 있습니다. 아시아 각국의 요리부터 이탈리아, 프랑스, 중동지방 등 다종다양한 요리를 즐길 수 있어 음식에 관해서는 천국과 같은 환경입니다 「후지미노국제교류센터」가 있는 후지미노시에도 인도, 프랑스 등 여러 나라의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센터의 스태프들도 맛있는 것에는 정신을 못 차리기 때문에 새로운 가게가 생기면 화제의 대상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음식 솜씨에 자신이 있는 당신, 모국이 자랑하는 요리 가게를 개업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음식점을 여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는 않습니다. 법률적인 필요 사항은 주로 세가지 입니다.

★첫째는 당신의 가게가 보건소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시설인 것. 예를 들면 부엌에 싱크대가 2 조 이상 있는 것이나, 급탕 설비가 있는 것, 화장실에 세면대가 있고 물비누가 있는 것 등입니다.

★둘째는 당신, 혹은 가게 종업원 중의 한 명이 식품위생 책임자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것. 일본의 법률에서는 하나의 점포에 한 명 이상, 이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두도록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식품위생 책임자 자격을 취득하는 것은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격 취득을 위한 강습은 하루 만에 종료합니다. 강습회에서는 점포의 청결을 유지하고 식중독을 막기 위해서 위생 법규, 공중위생학, 식품위생학을 배웁니다. 수강 종료 후에 테스트가 있는데, 패스하면 자격증이 교부됩니다. 강습회는 각 도도부현·정령 지정 도시에서 열리니까 가까운 보건소에 문의해 주세요. 수험료는 1만엔 정도입니다.

★셋째는 음식점 영업 허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가게의 도면과 가게 부근의 지도, 수질검사표 등을 준비합니다. 보건소에 배치해 두는 음식점 허가 신청서에 기입해 상기의 서류와 함께 보건소에 제출합니다. 그 때, 수수료를 지불합니다. 또, 동시에 점포 체크 일시를 결정합니다.

후일 보건소의 직원이 와서 가게가 첫번째 조건을 만족시키고 있는지 어떤지를 조사합니다. 문제가 없으면 일주일 이내에 영업허가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당신도 레스토랑의 오너입니다. 얼마나 자국의 요리가 맛있는지 일본인에게 가르쳐 주세요.

주: 각 도도부현·정령 지정 도시에서 점포 설비로 요구되는 것이나 필요 서류 등이 조금 다르기도 하니까 반드시 가까운 보건소에 문의하여 주세요.



▲ 스리랑카 레스토랑
인도라니·야만게씨의 가게
(후지미노시)
2000년 8월 오픈

www.ficcc.jp/foreign/

● 「인포메이션후지미노」의 과월호를 보실 수 있습니다.

「개별성인지과검진」으로 자신의 치아의 건강을 체크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 「개별성인지과검진」 . . . 치아는 없어지고 나서는 늦습니다. 건강할 때에 치아 검진을 받아 봅시다. 후지미노시에서는 40 세 부터 5 세 간격으로 70 세까지를 대상으로 검진 희망자 모집을 11 월까지의 기간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희망자는 엽서에 「개별 치과 검진」이라고 쓰고

- ①씨명 (후리가나) ②생년월일 ③연령
- ④우편번호·주소 ⑤전화번호⑥수진희망의료 기관 (장소가 불분명할 때는 「카미후쿠오카 보건센터 (264-8292)」을 기입해 「카미후쿠오카보건센터 (후지미노시 카미후쿠오카1-2-5 종합센터 「후쿠토피아」 내로 보내 주십시오. 신청은 한사람당 한 통입니다. 수진결정자에게는 「검진표」를 동봉합니다.

토요일은 「국제어린이클럽」의 날입니다 학습지도에 전력을 쏟고 있습니다.

여름방학도 반이 지났습니다. 한여름에 체력 단련에 힘쓰고 있는 자녀분의 고민은 숙제입니다. 그런 자제분에게 「국제어린이 클럽」이 공부를 돕고 있습니다. 일본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아동·학생에게 학습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화요일·토요일의 10시부터 12시까지이므로 단번에 숙제를 해 버리세요.

일본어 교실 발, 본격적인 여름입니다! 유카타와 국수를 즐기는 모임

매년 많은 사람으로 떠들썩한 후지미노시의 칠석제가 1 개월 지연되어 8 월에 실시됩니다. 올해는 7 일, 8 일의 이틀간입니다. 센터의 일본어 교실에서도 이 시기에 맞추어 「유카타 입기체험」을 합니다.



8 월 15 일 12시부터입니다. 깔끔한 맛의 소면을 먹으면서 유카타 모습의 추억을 만들지 않겠습니까? 전부 무료입니다. 친구분들에게 권유해서서 같이 놀러오세요.

외국적시민의 눈·신기한 일본인의 풍습

간다 아유무

일본에서 오래 생활하다보면 대화 중에 「무슨 형?」 이냐고 질문 받은 경험이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문화를 모르면 도대체 자신의 무슨 타입에 대해 묻고 있는 것인지 잘 몰라 고민했을 지도 모릅니다. 네이티브인 일본인은 그런 것을 되묻지는 않을 것입니다. 「무슨 형?」 이라고 물으면 일본인의 38%가 「A형」이라고 대답합니다.

별써 눈치채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형」이라고 하는 것은 「혈액형」에 대해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에서는 혈액형성격 분류(혈액형으로 점치기)를 믿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이것은 텔레비전이나 책의 영향이 큰 것으로 특히 최근의 붐으로는 혈액형별로 성격 판단을 하기도 해 이름이나 생일을 묻는 것 처럼 혈액형을 묻는 습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인의 혈액형 분포로서는 A형 38%, B형 31%, O형 22%, AB형 9%로 A형은 성실하고 우유부단 O형은 마이페이스로 독특한 취향이 있으며 B형은 사교적이고 스트레이트 AB형은 이면성이 있는 천재기질 등 혈액형별로 성격 판단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생각은 일본, 한국, 대만 등 아시아권에서는 침투하고 있는 생각입니다만 그 외의 나라에서는 별로 친숙함이 없고 신기하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친구에게 혈액형을 물어 보세요. 새로운 발견이 있을지도 몰라요.

지진을 대비해 피난장소의 확인을! 하자드 맵을 받아 둥시다

빈번하게 생기는 지진 정보. 언제 큰 재해로 인한 피해를 당할 지 모릅니다.

그래서 평소에 피난 장소를 결정해 두어 가족이 모이는 장소로 해 둥시다.

후지미시, 후지미노시에서는 새로 피난장소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아직 구하지 못하신 분은 꼭 준비하여 두십시오. 모르는 분은 센터에서 준비해 드릴테니까 신청해 주십시오.

www.ficec.jp/living/

● 6 개국어판의 생활가이드를 게재하고 있습니다.